

# 신세계인터내셔널 031430

## 주식 교환의 함의

### 화장품/섬유의복

Analyst **하누리**  
02. 6454-4892  
nuri.ha@meritz.co.kr

RA **정은수**  
02. 6454-4887  
esjung@meritz.co.kr

### 신세계그룹, 네이버와 주식 교환 결정

전일 신세계그룹(신세계 및 이마트), 네이버와 2,500억원 규모 주식 교환 결정 공시. 네이버와 이마트는 자사주, 신세계의 경우 신세계인터내셔널 보유 주식 활용 계획. 교환 이후 네이버는 이마트 2.96% 및 신세계인터내셔널 6.85% 확보, 이마트와 신세계는 각각 네이버의 0.24%, 0.16% 취득(지분율 기준).

### 신세계인터내셔널 주주 변화

신세계인터내셔널 주요 주주 합산 지분율은 60.90%로 유지. 신세계 보유 지분 중 6.85%가 네이버로 이전됨에 따라 주주 구성은 변화. 최대주주 신세계 38.91%(-6.85%p), 정유경 15.14%(미변동), 네이버 6.85%(+6.85%p).

### 온·오프라인 커머스 역량 강화 목적

최근 유통 시장 내 인수합병, 합작투자법인 설립 및 전략적 제휴 증가 추세. 11번가와 아마존 제휴, GS홈쇼핑과 GS리테일의 합병, 이베이코리아 매각, 쿠팡 상장 등 굴지의 유통사 모두 유사 행보. 금번 신세계그룹과 네이버의 주식 교환 또한 이와 같은 궤.

국내 최대 온/오프라인 유통사인 네이버와 신세계그룹의 만남 그 자체만으로 위협적. 채널간의 트래픽 흡수뿐만 아니라, 제휴사/자회사 활용 시너지 극대화 기대. 신세계그룹은 네이버의(CJ대한통운의 3대주주) 물류/배송 경쟁력 향유, 네이버는 신세계그룹의(신세계인터내셔널 최대주주) 콘텐츠 경쟁력 활용 가능.

### 신세계인터내셔널의 수혜

신세계그룹과 네이버 제휴에의 최고 수혜는 신세계인터내셔널에 있다고 판단. 관계사 중 유일한 '콘텐츠 제공자'로서 소비자 저변 확장 기대. 채널간 트래픽 이탈 방지가 아닌(e.g. 신세계백화점 → 네이버), 판매 채널 추가(e.g. 신세계백화점 + 네이버) 가능. 최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내 입점 확대 추세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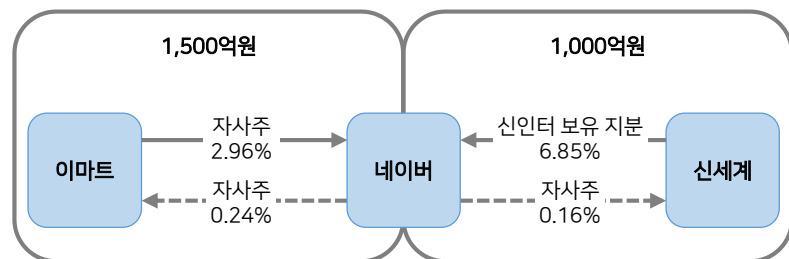
네이버의 브랜드 경쟁력 증대 또한 신세계인터내셔널의 몫. 신세계인터내셔널은 국내 최대 브랜드 사업자 중 하나로서, 의류/화장품/생활용품 등 자유 소비재 전 품목 취급. 자체/라이선싱/판권 합산 보유 브랜드는 40여개 이상으로 파악. Man on the moon(남성복 편집숍), La Perva(화장품 편집숍) 등 특수 전문점 통해 전개 중인 니치 브랜드 가지 수 또한 상당.

표1 신세계인터내셔널 주주 현황

주주명	주식 수(주)	지분율(%)
신세계	2,778,442	38.91
정유경	1,080,964	15.14
네이버	488,998	6.85
NPS	792,093	11.09
외인	247,261	3.46
기타	1,752,242	24.5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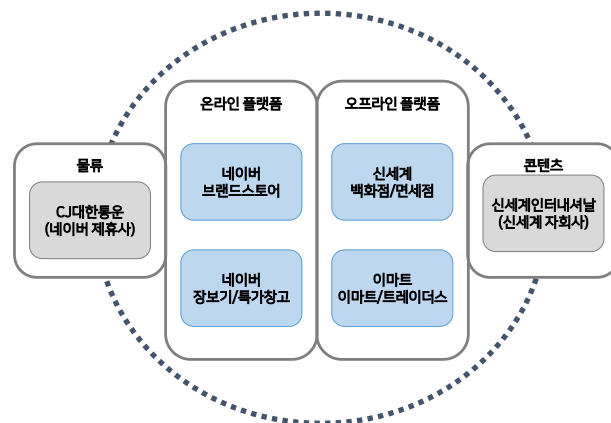
자료: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1 신세계 - 네이버 지분 교환 구조



자료: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2 신세계 - 네이버 시너지 창출 구조



자료: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## 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